9. 광복절기념예배

[관련 사진]



<광복절 기념예배 일러두기>

1. 교우들은 교회에서 미리 준비한 작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들어와 자리에 앉는다.
2. 강단 위에 대형 태극기를 걸고 예배를 드린다. 스크린에 태극기를 비추어도 좋다.
3. 징 지기는 사전에 연습하여 좋은 소리를 만들어야 한다.
4. 성경 낭독자 6인과 시 낭송자 3인 등 9인을 선정하여 순서를 맡긴다.
5. 낭독자들은 본문을 미리 잘 연습하여 틀림없이 낭독해야 한다.
6. 예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두 개의 강단을 쓰거나 낭독용 마이크 두 개를 준비한다.
7. 반주자는 찬송가 악보를 펴서 준비하고 있다가 낭독이 끝나면 지체없이 전주해야 한다. 찬송가 반주는 처음 두 마디를 포함하여 4마디 정도로 길지 않게 한다.
8. 광복절 노래는 태극기를 흔들면서 부른다.
9. 애국가를 부를 때는 태극기를 흔들지 않고 가슴 높이에 들고 부른다.
10. 만세삼창 선창자는 교회의 연장자가 맡는다.

광복절 기념예배 순서

집례: 000 목사

▣ 예배를 위한 묵상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교우들은 미리 준비한 작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들어와 자리에 앉는다.)

전주 ..... **352장** ..... **반주자**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는 일제에 의하여 금지곡으로 탄압되었던 찬송이다. 한 절만 전주한다.)

예배 말씀 ..... **집례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을 기념하여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광복의 그날을 회상하며 감사와 회개와 통일의 염원을 담아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함께 한 우리 모두가 감격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이제 다 함께 묵도하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묵도 ..... **징(000)** ..... **다같이**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세 번의 징 울림으로 예배가 시작된다.)

응답송 ..... **550장(1절)** ..... **성가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아멘.

기도 **000**

(기도자는 미리 작성하여 온 기도문을 3분 내로 마친다.)

기도송영 ..... **550장(2절)** ..... **성가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아멘.

▣ 출애굽 - 광복 맞이 감사

성경낭독 1 ..... **낭독자 1(000), 2(000), 3(000)**

낭독자(1)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

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 같이 일어서고 큰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출15:1~8)

낭독자(2) :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 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 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출15:9~16)

낭독자(3) :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 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출15:17~19)

광복 맞이 감사시 ..... 낭송자 4 (000)

(배경음악이 5초 정도 흐른 후에 낭송을 시작한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극심한 고통의 순간, 더는 부르짖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던 절망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해방의 새벽이 밝아왔구나. 꺼져가던 희망의 등불이 완전히 암흑에 묻히기 직전, 마침내 하늘의 권능이 이 땅에 임하였구나. 강력한 군대로 압제하던 원수들이 홍해의 거센 파도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듯, 이 민족을 짓누르던 어둠의 세력이 단숨에 무너져 내렸구나.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었던 옛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땅 위에 고스란히 재현되었으니, 이 위대한 구원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벅찬 감격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찬송 ..... 582장(1~3절) ..... 다같이

1. 어둔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2.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3.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치른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 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 광야생활 - 회개와 반성

성경낭독 2 ..... 낭독자 5(000), 6(000), 7(000)

낭독자(5) :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 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느9:9~13)

낭독자(6) :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느9:14~17)

낭독자(7) :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사십 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므로 그 옷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느9:18~22)

광야생활 참회시 ..... 낭송자(8) 000

(배경음악이 5초 정도 흐른 후에 낭송을 시작한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평화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였던 강토를 이념의 철조망으로 가르고, 증오와 파벌의 칼날로 서로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마저 눈먼 권력욕과 이권에 얽매여 사분오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둠을 걷어내 주셨던 해방의 감격은 잊은 채, 더 많이 쌓으려는 탐욕에 눈이 멀어 불평과 원망을 토해냈습니다.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며 풍요를 스스로의 공로로 착각하여 불신 가득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광야 같은 세월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민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참회의 눈물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미움이 가득한 곳에 사랑을 심게 하시고, 불신을 믿음으로, 분열을 온전한 일치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은혜를 회복시키시어 감사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거짓 우상이 무너져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찬송 ..... 527장 (1,3절) ..... 다같이

1.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 오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3.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 오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오 어서

▣ 가나안의 꿈 - 통일을 위한 염원

성경낭독(3) ..... (신 8:1~18) ..... 집례자와 회중

집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회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집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회중: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집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회중: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집례: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회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집례: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회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통일을 염원하는 기원시 ..... 낭송자(9) 000

(배경음악이 5초 정도 흐른 후에 낭송을 시작한다.)

차가운 만주 바람을 가르며 말을 달리던 선구자들의 고결한 넋을 기리며, 오늘 우리는 분단의 아픔이 서린 이 땅에서 가나안의 푸른 꿈을 다시금 품어본다. 기적 같은 해방의 감격을 누린 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어찌하여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가. 이 땅을 향한 하늘의 진노와 엄중한 경고는 왜 멈추지 않는가. 어쩌면 우리를 낮추시고 단련하시려는 하나님의 혹독한 시험을 아직 다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넘치도록 얻은 후에 교만해져서 끝내 창조주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백성이 될까 염려하시어, 예비하신 축복의 때를 늦추시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더욱 낮아진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한다. 장차 다가올 통일의 날에 하나님을 온전히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 본다. 현재의 풍요와 안락함에 안주하여 평안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영적 절망의 늪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걸어가야 할 구원의 길이 보이고, 목놓아 불러야 할 희망의 노래가 있다. 고난으로 얼룩진 민족의 아픈 역사가 아직 온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았으며, 허리가 잘린 분단의 처절한 슬픔이 여

전히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시퍼렇게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의 찬송 ..... 성가대

(반주자가 전주를 시작하면 성가대원 중 세 사람이 반주에 맞추어 각각의 절 가사를 낭독한다.
그리고 후에 다시 성가대가 합창한다. 화려한 기교를 섞지 말고 소박하게 찬양해야 한다.)

어둔 밤 지나가면

김호식 작사
문성모 작곡



설교 ..... (광복맞이 감사, 반성, 통일에의 꿈) ..... 000 목사

(첨부된 설교문을 참고하여 10분 내외로 마친다.)

기도 ..... 설교자

※ 이제 모두 일어서서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겠습니다.

광복절 노래 ..... 다같이

(회중은 일어서서 손에 태극기를 흔들며 노래한다.)

1.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이날이 사십 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
2. 꿈엔들 잊을건가 지난 일을 잊을건가/ 다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힘써 힘써 나가세. 힘써 힘써 나가세.

※ 모두 자리에 앉아 통일을 위한 기도를 교독합니다.

통일을 위한 기도 ..... 집례자와 회중

집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나라를 잃고 고난 속에 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주동이 되어 온 민족이 불의에 맞서 싸우며 정의를 위해 고귀한 피를 흘렸습니다. 이 귀한 민족 사랑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에 불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통일 조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회중: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집례: 주여, 이 땅이 황폐되어 가고 희망이 거의 사라질 무렵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민족은 구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잘살게 되었으나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국가의 위상이 높아질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풍요를 구가하는 시대에도 이 모든 것의 주인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회중: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집례: 주여, 남과 북이 갈라지고 전쟁을 겪고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도 불신의 뿌리가 깊고 남북이 맞잡은 손 뒤에 서로를 향한 비수를 감추고 있습니다. 주여, 한반도에 평화를 주옵소서. 지도자로부터 온 백성이 무릎을 꿇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민족을 섬기게 하시고 민족 앞에 스스로를 희생하여 통일의 그 날이 앞당겨지게 하옵소서.

회중: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광복절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한국교회가 통일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구국 종교로서의 권위와 영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영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이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 찬송가 301장 1절과 2절은 앉아서 부르시고 3절에 일어섭니다.

봉헌찬송 ..... 301장 ..... 다같이

(3절 부를 때 모두 일어선다.)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봉헌기도 ..... 집례자

※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알림과 친교 ..... 맡은이

※ 이제 모두 일어서서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소원하며 만세삼창을 하겠습니다. 만세삼창의 내용은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만세삼창 ..... 선창자와 회중

(선창자와 회중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 만세 (만세) / 만세 (만세)

애국가 제창 ..... 다같이

(태극기를 흔들지 말고 오른손으로 들어 고정시키고 애국가를 부른다.)

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2.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3.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4.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축도 ..... 000 목사
마침송영 ..... 성가대

▣ 광복절 기념예배 설교문: 광복맞이 감사, 반성, 통일에의 꿈

올해는 광복 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돌이켜보면 일제의 식민 통치는 참으로 치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외세를 막아내지 못한 대가는 엄청난 희생과 굴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온 민족이 들고일어나 삼일 만세운동을 전개하였으나, 그 결과는 희망이 아닌 암울한 식민 통치의 늪으로 점점 더 빠져드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지도자들의 눈물어린 계몽도 있었고, 독립운동가들의 활약도 눈부셨지만,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에는 무력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그 상황이 더욱 비참하여 창씨개명, 신사참배 등 엄청난 민족적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대동아전쟁 이후에는 일제의 발악이 더 심해져서 민족의 독립과 해방에 대한 희망은 마치 타오르다 꺼진 잿더미와 같았습니다. 이대로 민족의 역사가 끝나는 줄로만 알았던 바로 그때 갑자기 해방이 왔고 독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해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해방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던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희망을 포기할 무렵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것과 같습니다. 이 광복절을 기념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해방과 독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듯이, 이 민족에게 독립과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어른들만이 아니라 후세대들도 함께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일제 치하와 해방의 역사를 모릅니다.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육의 목표가 일류대학 가는 것이고, 내신 성적 올리는 것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민족의 역사를 배우는 일은 흥밋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이 영웅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소중하게 취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역사를 묻지 않고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은 결과입니다. 또한 이념 논쟁으로 전통적인 역사의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혼란에 빠진 결과입니다.

성경에는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연명하던 암울했던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고 가르치고 배우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초막절에는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온 가족이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광복절만이라도 교회가 앞장서서 민족 고난의 역사를 가르치고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과거를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해방 후 비참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오늘의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6·25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 후 수많은 정치적 격변과 IMF 경제 위기 등의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주시

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진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쟁을 일삼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경제적으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과 더불어 노사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하고 부끄러운 사건들이 연일 신문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의 우상을 숭배하며, 이단과 사이비들이 독버섯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세력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였고, 자리다툼과 부정선거와 정의롭지 못한 재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민족이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재를 머리에 뿌리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이 민족을 용납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통일의 꿈을 꾸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통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 옛날 해방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로 허락하셨듯이, 통일도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통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남과 북이 손을 맞잡고 회의를 거듭한다고 통일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인간들만의 통일 노력은 더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와 또 다른 민족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아직도 광야 생활과 같은 분단의 세월을 끝내지 못하고 있으며, 꿈꾸는 가나안 복지, 통일의 대업은 멀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그릇이 아직 모자란 탓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입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과 부패와 분열과 싸움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통일을 맞이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통일맞이의 주역이 되기 위하여 정신 무장을 다시 해야 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에 더욱 힘쓰고 윤리회복 운동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북녘땅을 바라보며 눈물로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통일을 위한 눈물의 기도와 호소가 더 간절해야 하겠습니다.

통일 한국을 이루어 민족복음화와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복음화에 크게 쓰임 받는 민족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남북의 통일을 기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중심 국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남북의 백성이 모두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세계 경제의 큰 축을 이루어 열방이 부러워하는 경제 대국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살고 싶은 나라, 가장 축복 받은 나라, 21세기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서의 가나안 복지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민족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가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을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4대 강국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국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국익에 위배된다면 한국은 언제나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의 정치적 상황이 계속되는 분열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경제는 암울한 지표로 미래적인 근심과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높은 실업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들의 복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범죄가 나날이 극악무도해지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제철을 만난 듯 활개를 치며 당당하게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과 오만한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굶는 자에게 밥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살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음을 외쳐야 합니다.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 앞에 니느웨 백성들처럼 모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하나님만이 없애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통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먼저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깨끗하고 정결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순교자를 내었던 투철한 복음주의 신앙이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민족의 희망이 되고, 교회를 통하여 민족의 숙원이 이루어지는 날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게 해방의 감격을 주시고 지금까지 험한 세월의 고비고비마다 지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복 00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민족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어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민족 통일의 그날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